

네오아트센터 기획 초대전

조영동

“근원으로 돌아가다”

Return to the Origin

2026. 8. 19. WED — 10. 10. SAT

OPENING

2026. 8. 19. WED 16:00

3전시관

NEO Art 수암골 네오아트센터

조영동 1933 - 2022

Jo Young Dong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석사

1961년 대한민국 국전 수상,
1998년 국민훈장 동백장,
2015년 제19회 가톨릭미술상 특별상

12회의 개인전 (1968-2010)

57년, 논산 대건고등학교 교사
58~60년대, 대전 지역 교사
65년, 목포교육대학교 교수
67~84년,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73~74년, 미국 휴스턴대학교 객원교수
84~98년,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교수

충북도전, 충남도전, 경남도전, 전북도전, 강원도전 심사위원,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부회장, 한국미술협회 이사 역임

작품 소장처/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서양화가 故 조영동 작가 유작 총 267점 기증

NEOArt

영혼의 토양 위에 피어난 치유의 미학 숨겨진 궤적을 마주하며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태초의 세포 조직 같기도 하고, 오랜 인고의 시간을 품고 갈라진 묵직한 대지의 표면 같기도 하다. 오는 19일 개막하는 초대전의 포스터 녹갈색 텍스처는 생명의 근원과 순환을 끈질기게 탐구했던 한 예술가의 철학을 강렬하게 대변한다.

충북 음성 생극면의 낡은 농기구 창고, 그리고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박스 속 칠흑 같은 어둠. 자칫 영영 스러질 뻔했던 거장의 숨결이 기적처럼 세상의 빛을 마주했다. 파손의 위기속 이 작품들은 한 예술가가 온몸으로 지켜낸 삶의 '진실' 그 자체다. 수암골 네오아트센터 3전시관에서 개최되는 조영동 화백(1933~2022)의 기획 초대전 “근원으로 돌아가다(Return to the Origin)”는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회화들과 긴 잠에서 깨어난 생생한 드로잉들을 최초로 선보이는 자리로 준비되었다.

한국 추상미술에 독자적인 발자취를 남긴 조영동 화백의 삶은 형언하기 힘든 고통과 인내의 연속이었다. 격동의 현대사를 관통하며 육체적 병마를 견뎌야 했고,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는 아픔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절망 앞에 무너지지 않았다. "예술은 치유이고 희망이고 생명이며 인간 존재 이유"라는 생전의 고백처럼, 삶의 시련과 상실의 고통을 캔버스 위 거칠게 긁히고 뭉개진 두터운 마티에르로 묵묵히 승화시켰다.

그의 독보적인 예술 세계는 삶의 굴곡을 따라 더욱 깊어졌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단연 관람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대작들은 화백이 온몸으로 겪어낸 치유의 여정을 가장 극적으로 증명한다.

작가의 '공상(空-想)' 시리즈 중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화면 전체를 집어삼킬 듯 타오르는 강렬한 붉은색 위로 날카로운 검은 선들이 맹렬하게 얹혀 있는 수직의 대작이다. 뇌졸중으로 투병하던 아내를 향한 애뜻함과 내면의 상처를 캔버스 위 거칠게 긁어낸 붓질로 처절하게 토해냈다.

또한 생명을 품은 대지를 표현한 '토양(土壤)' 시리즈는 메마른 대지가 갈라진 듯한 유기적 형태 위로 깊고 붉은 진달래꽃 형상의 모티프들이 거대한 타원을 그리며 순환하는 두 폭의 캔버스다. 가족사의 짙은 슬픔은 아내가 그렸던 진달래꽃으로 치환되어, 고통마저 넉넉히 품어 안는 대지의 무한한 생명력으로 부활했다.

이러한大作들이 뿜어내는 숭고한 에너지는 전시장을 채우는 또 다른 특별한 서사와 만나 완벽한 치유의 공간을 완성한다. 이번 초대전의 숭고한 의미를 더욱 빛내기 위해, 먼 이국땅 스페인에 거주하는 둘째 딸 조윤신 님이 두 아들과 함께 뜻깊은 고국 방문을 결행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스페인에서 나고 자란 손자들은 할아버지의 위대한 예술적 궤적과 조우는 이번 전시가 단순한 회고를 넘어 세대를 잇는 생명력의 무대임을 증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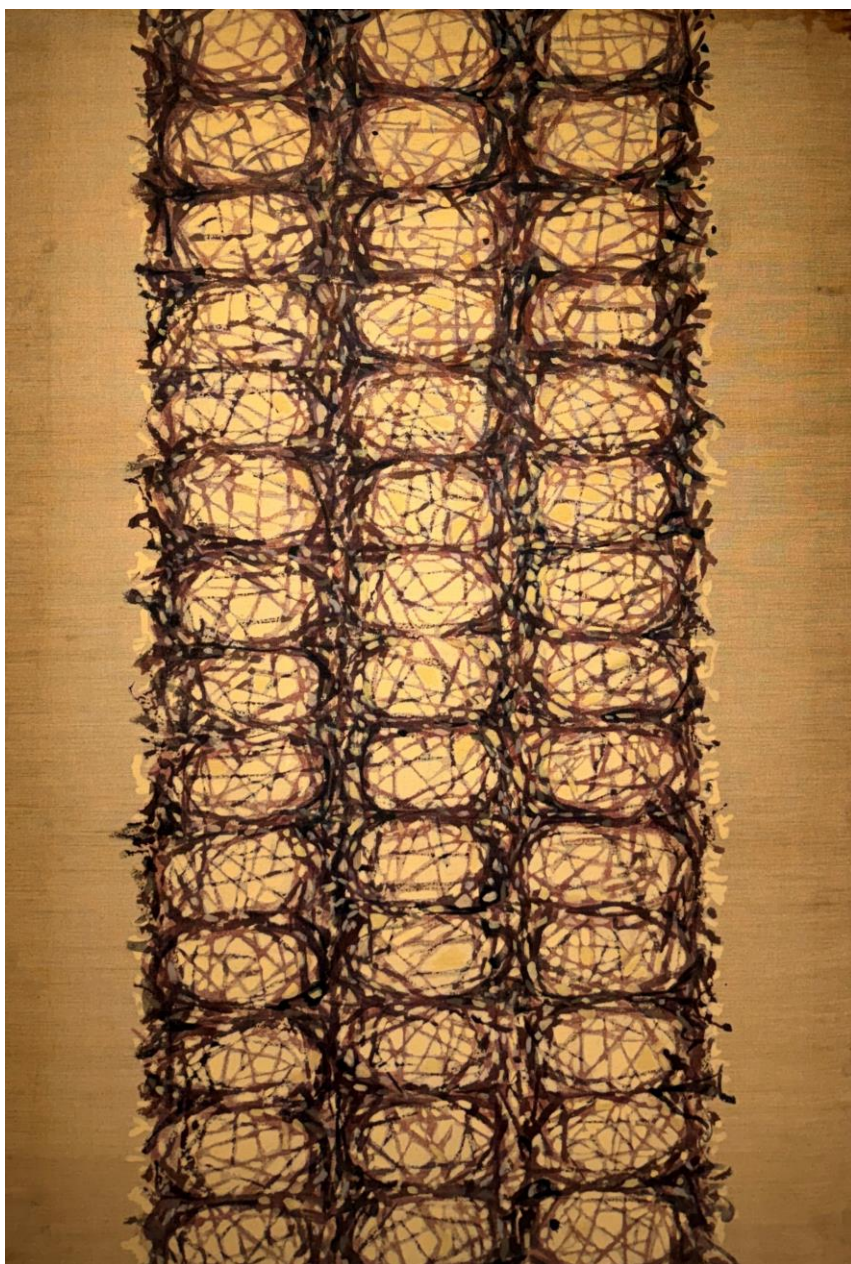
네오아트센터가 조영동 화백의 전시를 이토록 끈질기게 이어가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중에게 온전히 조명 받지 못한 위대한 작가의 웅장한 예술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함이다.

생전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나를 그린다"고 고백했던 작가. 낡은 창고를 벗어나 전시장 조명 아래로 돌아온 그의 '영혼의 토양'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감동의 샘이 될 것이다. 오는 8월 19일(수) 오후 4시 오프닝을 시작으로 10월 10일(토)까지 이어지는 이번 초대전. 캄캄한 심연을 넘어 마침내 삶의 근원으로 회귀한 위대한 예술가의 숨겨진 궤적 앞에서, 가장 묵직하고도 진실한 위로를 깊이 경험하기를 기대한다. / 네오아트센터 박정식 대표



동심의 메아리- 근원, 점 시리즈

145x112cm,
혼합재료,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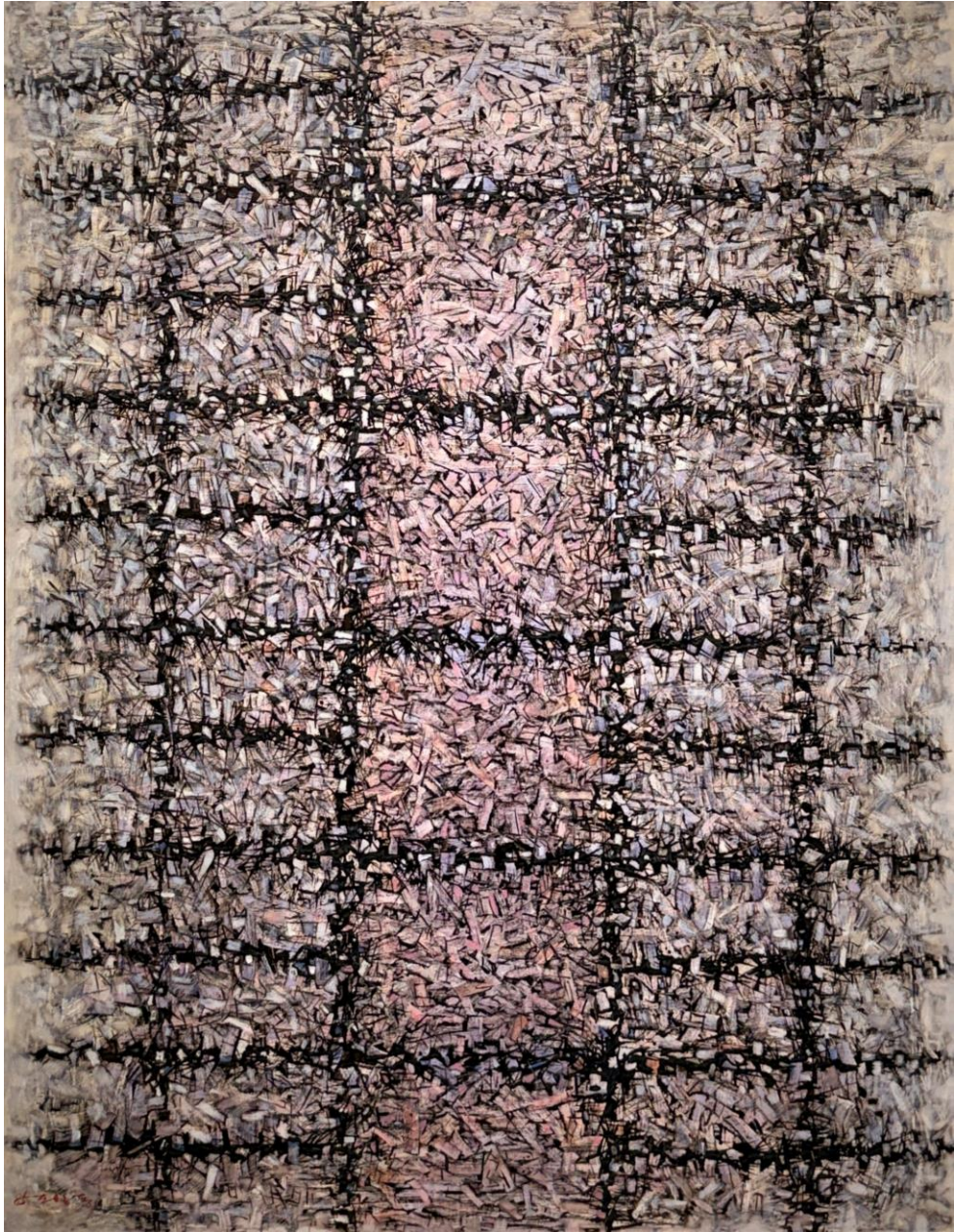
동심의 메아리- 근원, 점 시리즈

130x90cm,
혼합재료, 1978



기억의 이정표, 그리움의 지도

130x90cm,
혼합재료, 1984



그리움의 지도

145x112cm,
혼합재료,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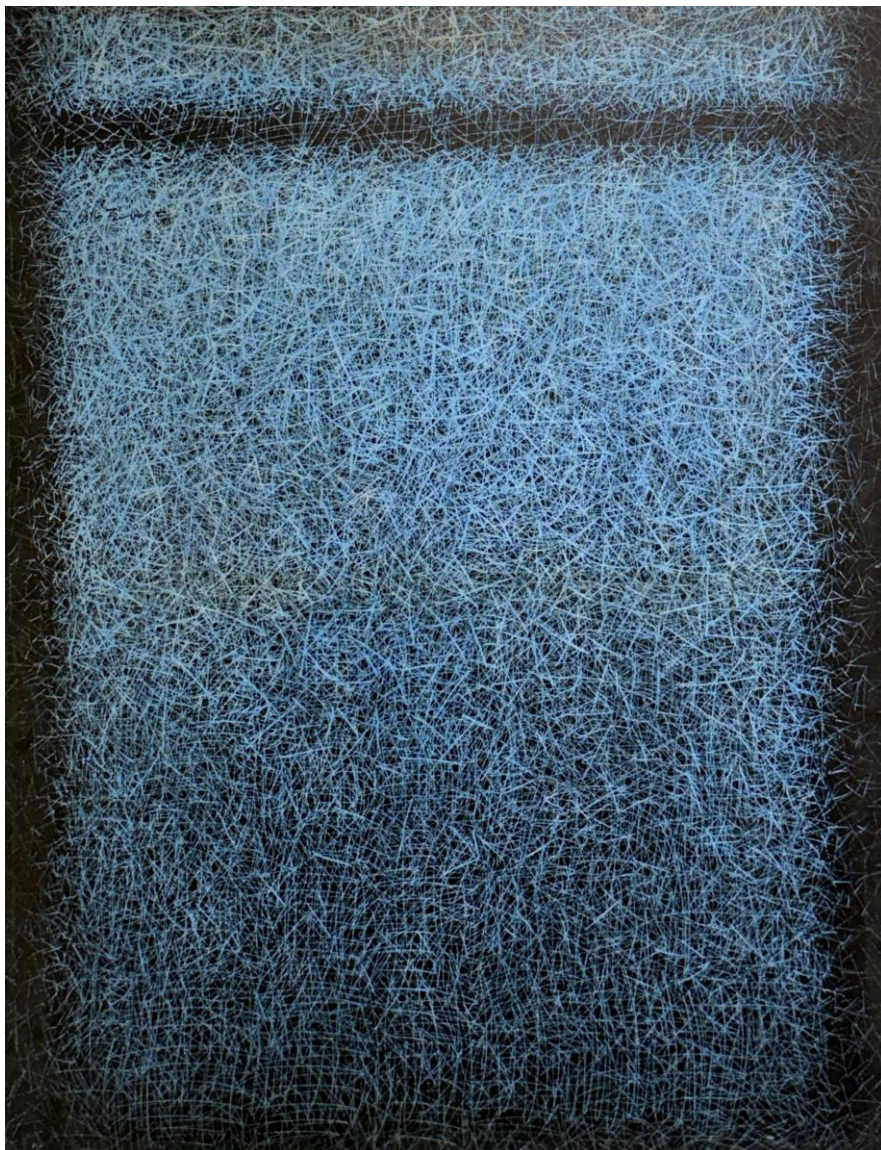
동심으로의 귀환-인성, 토양 시리즈

130x80cm,
혼합재료,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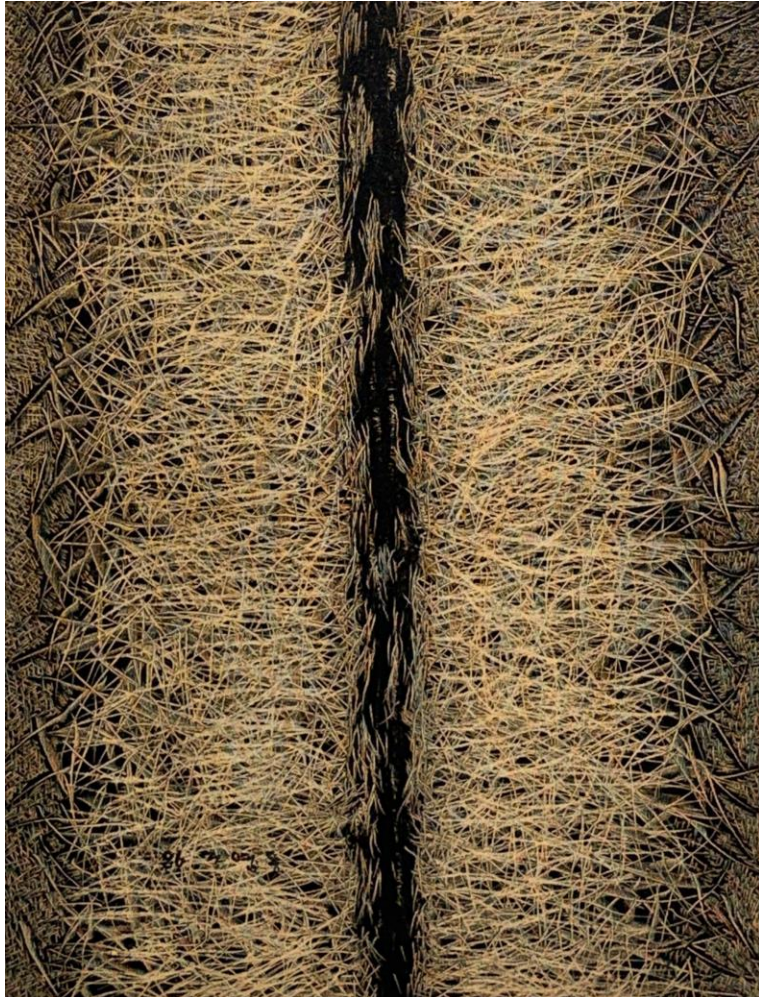
동심으로의 귀환- 인성, 토양 시리즈

130x80cm,
혼합재료, 1997



동심으로의 귀환- 공상 시리즈

117x92cm,
혼합재료, 1986



동심의 유토피아- 공장 시리즈

65x50cm,
혼합재료, 1986



동심으로의 귀향- 인성, 토양

60x72cm,
혼합재료, 1996



동심으로의 귀향- 인성, 토양

140X112cm,
혼합재료, 1996

NEOArt